

책자형선거공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주시장선거

기다렸따!

전주를 키울 사람!

-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졸업
- 21대 국회의원(전주을)
- 진보당 전주시을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현)
- 진보당 금리인하운동본부장(현)
- 진보당 원내대표(전)

5책

강성희

진보당 전주시장후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주시장선거

1. 인적사항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 업	학 력	경 력
5	진보당	강성희	남	1972.09.07. (53세)	정당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학과 졸업	(전)제21대 국회의원(전주을) (전)진보당 원내대표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621,653	153,177	468,476	모:고지거부	장남:없음	기타 (1991.5.3. 5급 전시근로역(근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 보 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 납 액 누계	현 체납액	
계	2,270	0	0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벌금2,000,000원 (2005.01.10) -업무방해:벌금5,000,000원(2011.12.30)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벌금3,000,000원 (2013.08.21) -업무방해:벌금2,000,000원(2015.04.30)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2015.06.17)
후 보 자	1,697	0	0	
배 우 자	573	0	0	
직계존속	모:신고거부			
직계비속	0	0	0	

4. 소명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8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10년 동안 헌신하며 발생한 결과입니다.

30년 기득권의 벽을 깨야 전주가 전진합니다!

전주가 멈춘지 오래입니다.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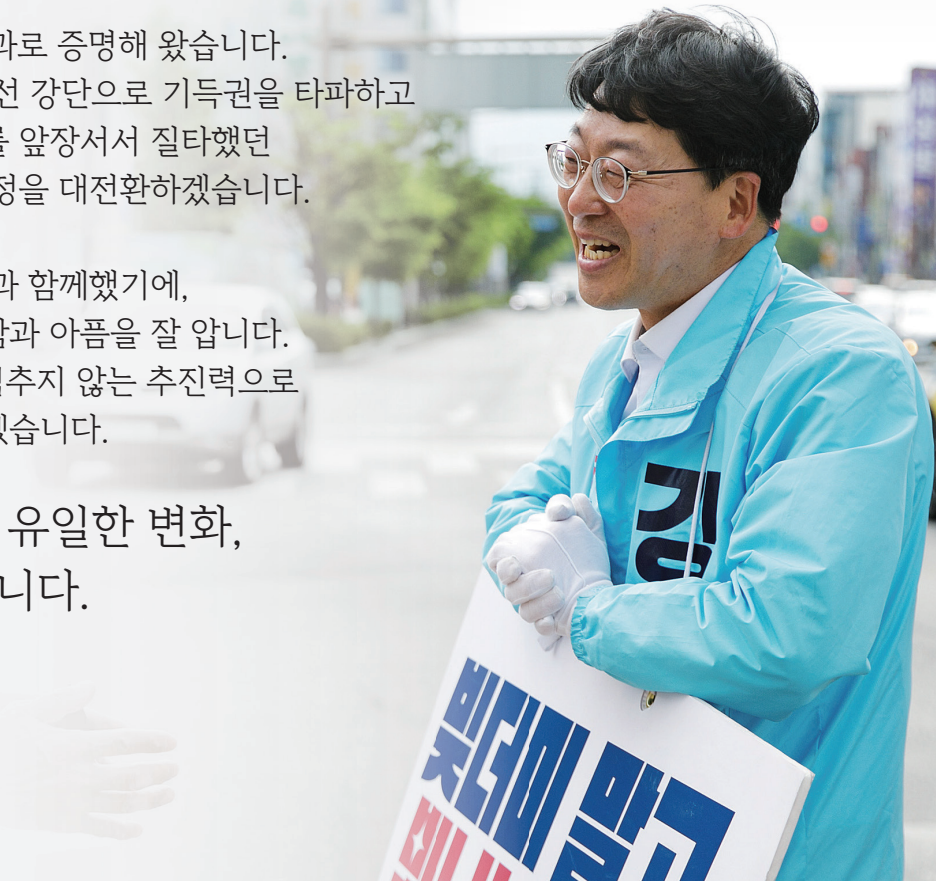
지난 30년,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기존 정치와 이해관계에 얽매인 사람은
이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을 절대 깰 수 없습니다.

강성희는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롭기에 할 수 있습니다.
특혜 논란의 자광 희망고문,
매년 650억 원을 퍼주면서도 개선 없는 시내버스,
50년간 독점해 온 전주시금고 전북은행.
전주의 돈이 기득권의 주머니로 흐르는
'밑 빠진 독'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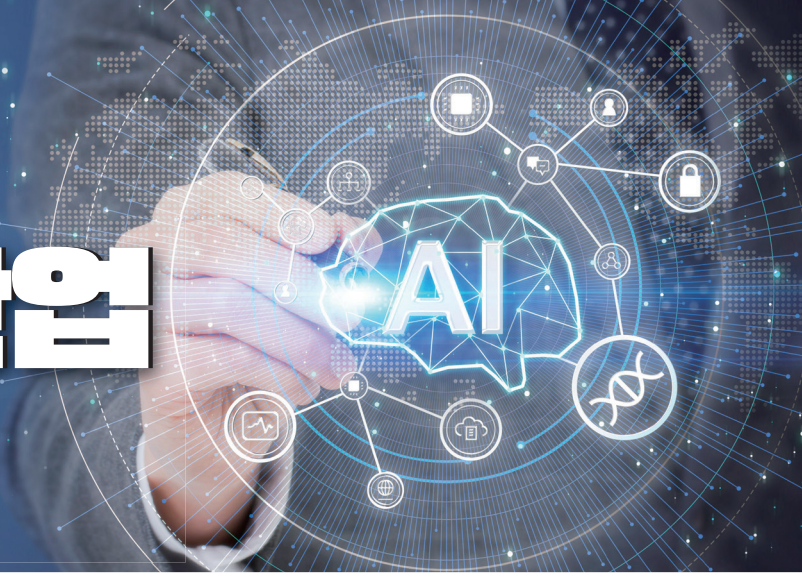
강성희는 실천으로, 결과로 증명해 왔습니다.
'입틀막' 검찰독재에 맞선 강단으로 기득권을 타파하고
은행권의 고금리 장사를 앞장서서 질타했던
그 추진력으로 전주 행정을 대전환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과 함께했기에,
누구보다 서민의 고단함과 아픔을 잘 압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손, 멈추지 않는 추진력으로
전주 대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전주가 기다려온 유일한 변화,
오직 강성희뿐입니다.



미래 산업 대전환



전주-새만금 반도체·AI 벨트 조성

- RE100 기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및 고성능 AI 데이터 센터 구축
- 지역 대학 연계 융합 인재 양성
- 에너지 주권 확보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이전 및 농협중앙회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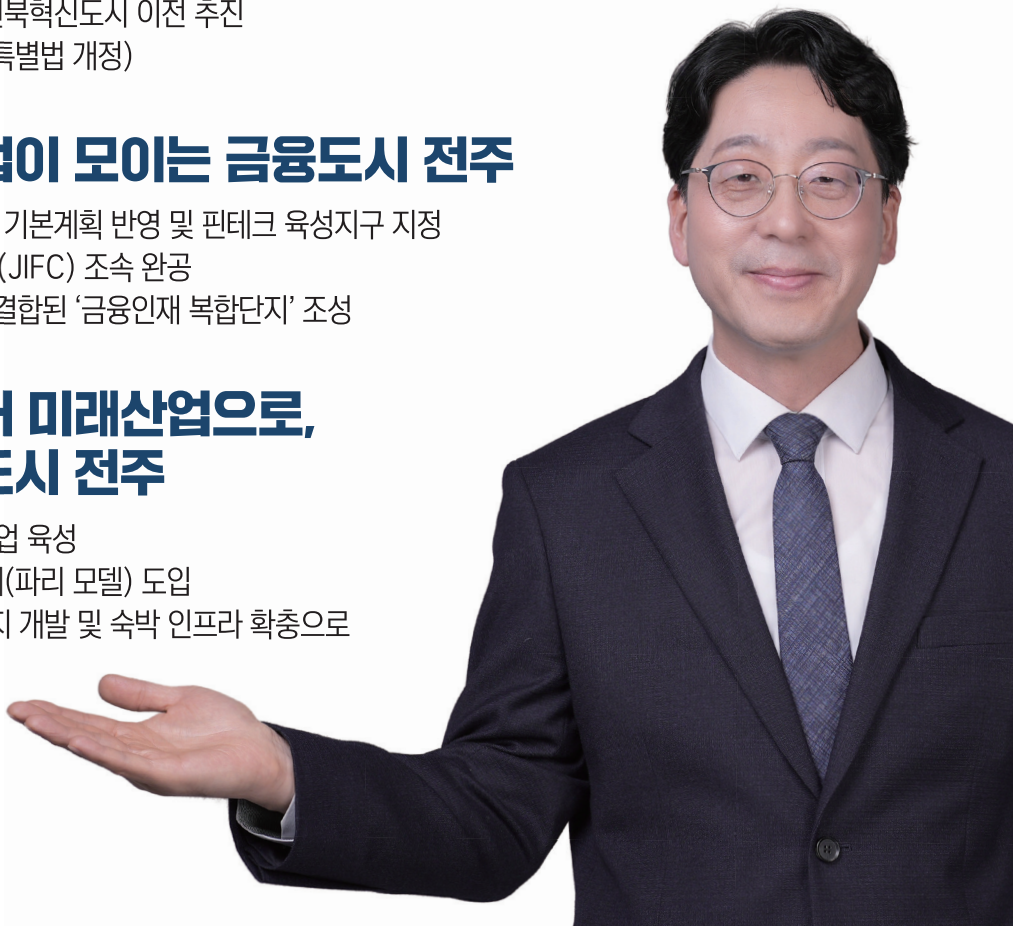
- 농생명 수도 완성, 공공 일자리 대폭 확충
-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추진
- 농협중앙회 유치(특별법 개정)

사람과 산업이 모이는 금융도시 전주

-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반영 및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조속 완공
- 교육·채용·정주가 결합된 '금융인재 복합단지' 조성

전통을 넘어 미래산업으로, 문화관광 도시 전주

- 미래형 문화 IP 산업 육성
- 예술가 사회보장제(파리 모델) 도입
- 권역별 테마 관광지 개발 및 숙박 인프라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 실현





시민의 일상 대전환

전주에너지공사 설립

- 기업에는 '반값 전기료', 시민에게는 에너지복지!
- 에너지 자립기금 조성 및 새만금-전주 RE100 전용 선로 구축
- 공공 유희부지 햇빛 발전 수익의 '시민 배당' 실현

골목마다 활력넘치는 민생 전주

- 특례보증 1,000억 원 확대
-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전환, 골목형 상점가 원스톱 지원
- 전주 주빌리 서민금융센터 조성, 서민 부채 경감 및 금융복지 강화
- 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확대

시내버스 대전환, 버스 공영제 추진

- 실효성 없는 BRT 중단
- 전주교통공사 설립 및 직접 운영
- 어르신·청소년 100원 버스, 수요응답형(DRT) 확대

대한방직 부지 공공개발 전환

- 사업 주체 검증 강화 및 교통대책 원인자 부담 원칙 확립
- 자광 특혜 개발 중단 및 시민 공유형 공영 개발 모델 도입



기다렸었다!
5강성희



돌봄이 든든한 전주

촉촉하고 따뜻한 전주형 통합돌봄

- 권역별 긴급돌봄센터 설치 및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 및 종사자 처우 현실화
- 노노케어 지원 및 배우자 간병 노인 휴식지원 제도화

땀 흘려 일하는 시민이 든든한 벗, 전주

- 상시 업무 직접고용 전환 및 기간제 '쪼개기 계약' 근절
-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정임금제 도입
- 노동전담 부서 강화, 노정교섭 활성화로 노동행정 선도
- 농민수당 2배(농민기본소득) 및 필수농자재 지원 확대
- 로컬푸드 도심 직매장 확대 및 공공급식 체계 강화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전주'

- '성평등 노동공시제'로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별 격차 해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삭제 지원 및 법률·심리 통합 지원
- 시장 직속 성평등위원회 격상 및 성평등 정책관 신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주

- 보건의료 예산 2배 확충, 시민 공공주치의제 단계적 도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전주시 건강권 기본조례 제정
- 권역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

자연과 사람이 숨 쉬는 전주

- 무분별한 나무 베기 중단 및 도심 녹지축 보존
- 초고층아파트 특례사업 숙의, 건지산 국가도시공원 추진
- SRF 쓰레기 발전소 문제 해결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본이 탄탄한 전주

아이들의 꿈과 권리를 지키는 전주

- 방중 초등 돌봄 도시락 지원 및 청소년 '천원의 식사'
- 공공관리형 스터디 카페 및 자유공간 확대 조성
- 아동·청소년 '문화활동 바우처' 확대
- 지역청소년센터 급식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 차별 해소

안심 주거, 1인 가구도 걱정 없는 전주

-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월세 지원 강화
- 전주 사회주택 조례 제정 및 1인 가구 특화 주택 조성
- 프리랜서 네트워크 공간 제공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일할 기회와 재도전이 든든한 전주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50% 확대
- 신중년·어르신 재취업 지원센터 강화
- 어르신 일자리 공공형 비중 확대 및 수당 현실화
- 고립은둔 청년, 4050 세대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강화

사각지대 없는 안전, 차별 없는 포용 도시

-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내는 행정으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 다문화·이주민 언어 장벽 해소 및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
- 자립 추모관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공영 장례 지원 강화

막힘없는 소통, 차별 없는 이동권

-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 전주역 택시 승강장 구조 개선으로 병목 현상 근본 해결
- 사고를 유발하는 포트홀 즉각 정비 시스템 상시 가동

기다렸었다!
5강성희

사람을 바꿔야 '전주의 판'이 바뀝니다!

전주, 어쩌다 전국 22위 소멸의 변방이 되었습니까?
호남의 수부, 전국 10대 도시의 자부심은 무너졌습니다.

인구는 밀려나고, GRDP는 최하위권이며,
청년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6,000억 원의 빚더미뿐입니다.

시민이 주신 큰 지지를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기득권에 심취해 전주의 몰락을 방조한 세력,
그들에게 또다시 전주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이제는 관성대로 찍어주는 투표를 끝내야 합니다.
선수를 교체해야 전주가 살아납니다.
강성희가 굳게 닫힌 전주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기다렸었다! **강성희**

5월



정당투표는 진보당

오만한 일당독점. 견제할 힘을 주십시오.
진보당에 주는 한 표는
전주시의회의 견제와 혁신을 만듭니다.
민주-진보 양날개로 전주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후보

오송희

-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총무국장(현)
- 진보당 전주시지역위 지방자치위원장(현)
- 6·7대 전주시의원 출마
- 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